

서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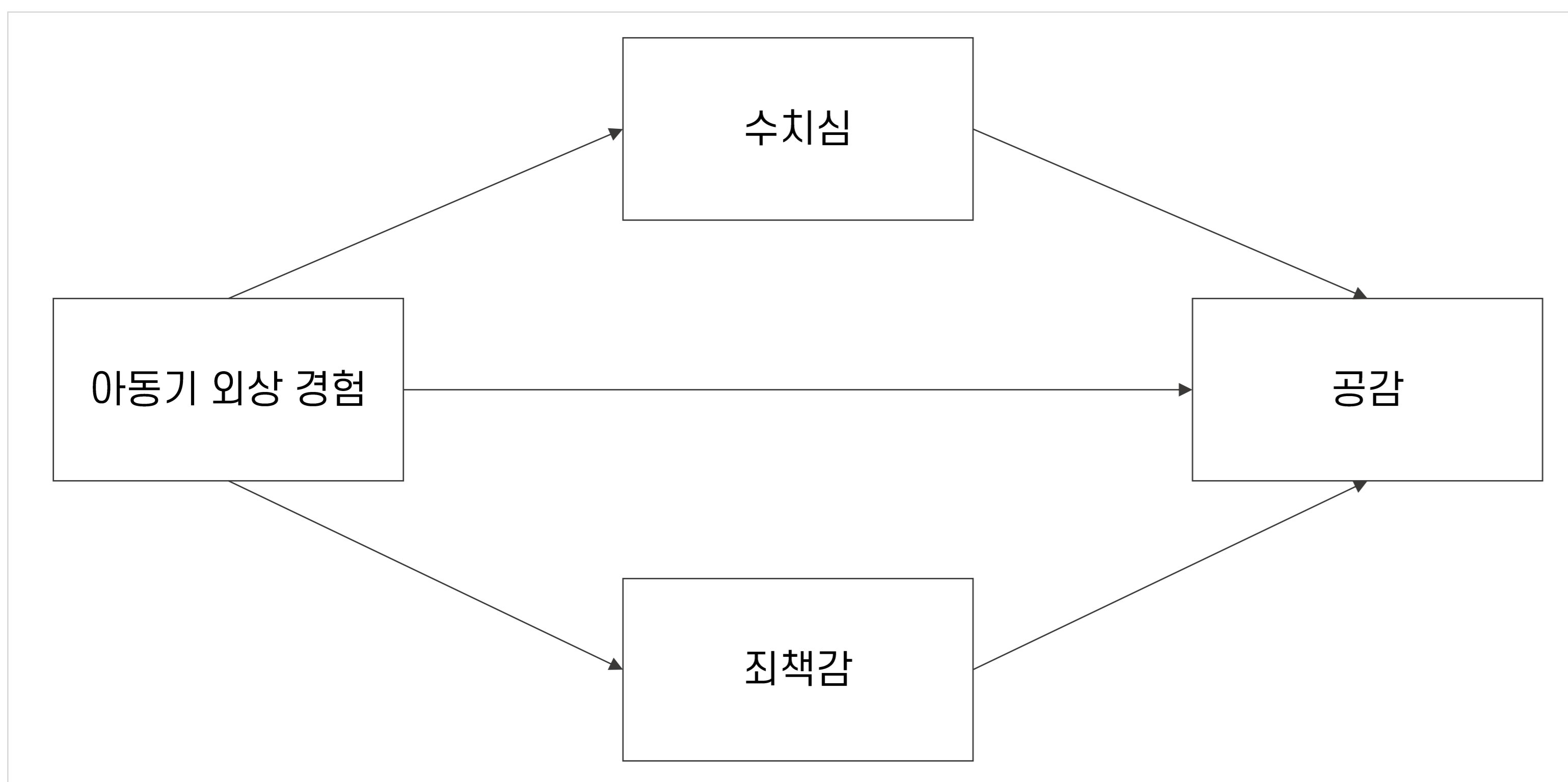
타인과의 친밀감 형성이 요구되는 초기 성인기에 가지게 되는 공감 능력은 해당 시기의 발달 과업을 달성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(김노라, 조명진, 2017; Erikson, 1963). 공감 능력을 형성하는 주요한 선행조건 중 하나가 아동기에 경험하는 부모의 보살핌인데,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학대나 방임을 경험하게 되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감소하게 된다(Lyons et al., 2017). 이러한 트라우마의 맥락에서 아동 및 청소년은 수치심과 죄책감이라는 자의식적 정서를 주로 경험하게 된다(Kealy et al., 2018; Sekowski et al., 2020). 이때, 수치심은 자기지향적 정서인 반면에, 죄책감은 타인지향적 정서이기 때문에(Tangney & Dearing, 2002), 각각의 정서가 공감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 상이할 것으로 기대된다.

따라서,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 수치심과 죄책감을 매개로 초기 성인기의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.

연구문제

- 연구문제 1. 아동기 외상 경험은 초기 성인기의 공감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?
- 연구문제 2. 아동기 외상 경험과 초기 성인기의 공감 능력 간의 관계에서 수치심은 매개역할을 하는가?
- 연구문제 3. 아동기 외상 경험과 초기 성인기의 공감 능력 간의 관계에서 죄책감은 매개역할을 하는가?

[그림 1] 아동기 외상 경험이 수치심과 죄책감을 매개로 초기 성인기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



Note. 수치심과 죄책감의 상관을 허용하였으나, 간명성을 위하여 생략함.

연구방법

연구대상

본 연구는 전국의 만 20세부터 29세(평균 연령 23.8세)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. 조사 기간은 2022년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총 9일간 진행되었으며, 최종적으로 440명(남자: 220명, 여자: 220명)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.

연구도구

• 독립변수

아동기 외상 경험은 아동기 외상 질문지(K-CTQ: Korea-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)를 사용하였다(유재학 외, 2009). 해당 척도는 만 19세 이전에 해당하는 아동기와 청소년 시기의 정서방임 8문항, 신체학대, 성학대, 정서학대, 신체방임 각각 5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,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. 문항의 예시로는 “가족 중 한 사람이 나를 심하게 때려 상처가 나거나 멍 든 적이 있다.” 등이 있다.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로 ‘전혀 아니다(0점)’에서 ‘매우 그렇다(4점)’으로, 점수가 높을수록 만 19세 이전에 경험한 외상 경험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.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(Cronbach’s Alpha)는 .826이다.

• 매개변수

수치심 및 죄책감은 상태 수치심 및 죄책감 척도 (SSGS: The State Shame and Guilt Scale)를 사용하였다(Marschall et al., 1994). 해당 척도는 수치심(예: “나는 너무 창피해서 사라지고 싶다.”) 5문항, 죄책감(예: “나는 자책감과 후회가 든다.”)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. ‘전혀 그렇지 않다(1점)’에서 ‘아주 많이 그렇다(5점)’으로 응답되었으며,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과 죄책감의 평균을 각각 계산하여 사용하였다. 점수가 높을수록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,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(Cronbach’s Alpha)는 수치심이 .917, 죄책감이 .884로 나타났다.

• 종속변수

공감은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(IRI;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)를 사용하였다(강일 외, 2009).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공감에 해당하는 관점 수용 7문항(예: “나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어떤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렵다.”)과 정서적 공감에 해당하는 공감적 관심 7문항(예: “나는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흔히 동정심을 가진다.”)만을 수집하였다.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로 ‘나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문장이다(1점)’에서 ‘나를 아주 잘 표현한 문장이다(5점)’으로 수집되었다.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의 평균을 내어 사용하였으며,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적,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.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(Cronbach’s Alpha)는 .759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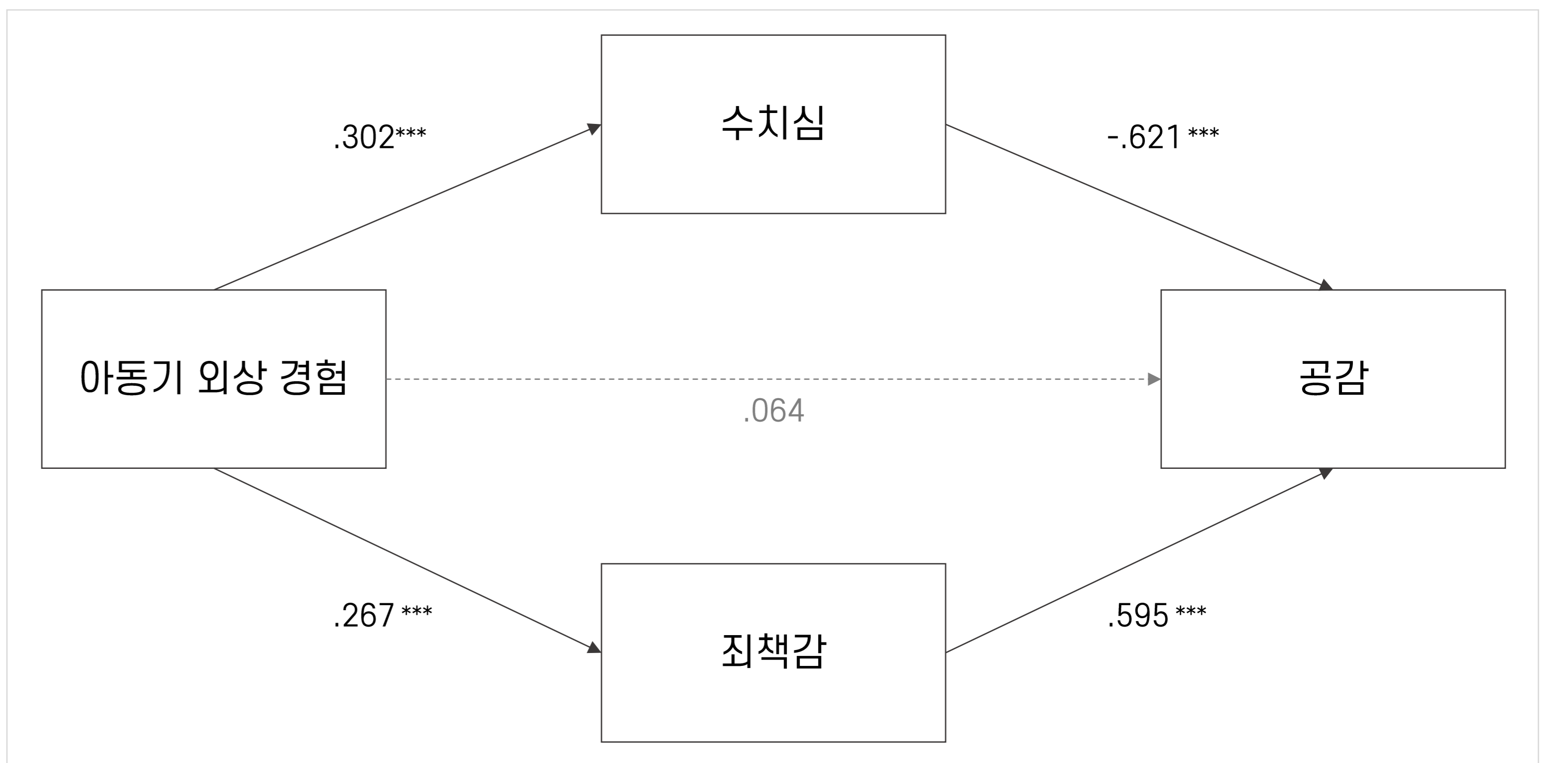
분석방법

본 연구의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Mplus 8.7 (Muthén & Muthén, 1998-2021)을 사용하여 경로분석(path analysis)을 실시하였다. 이때의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. 매개효과는 부트스트래핑(Bootstrapping)을 이용하여 무작위 표집을 5,000번 반복하였다.

결과

- 첫째, 아동기 외상 경험은 초기 성인기 공감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.
- 둘째, 아동기 외상 경험은 수치심을 매개로 초기 성인기의 공감 능력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($\beta = -.187$, 95% C.I. = $-.260 \sim -.118$).
- 셋째, 아동기 외상 경험은 죄책감을 매개로 초기 성인기의 공감 능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($\beta = .159$, 95% C.I. = $.089 \sim .234$).

[그림 2] 아동기 외상 경험과 초기 성인기 공감 능력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의 매개효과



Note. 수치심과 죄책감의 상관을 허용하였으나, 간명성을 위하여 생략함.

논의

-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경험한 학대 및 방임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적절하고 무가치하게 느끼는 수치심을 증가시켜 초기 성인기의 공감 능력을 낮추었다.
- 반면에, 아동기 학대 경험은 타인지향적인 자의식적 정서인 죄책감을 증가시켜 초기 성인기의 공감 능력을 증가시킬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.
-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외상 경험에 노출되었던 아동들이 부적응적인 수치심을 건강한 죄책감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타인과 잘 공감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예방 및 개입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.

참고문헌

강일, 기선완, 김성은, 정병석, 황지희, 송지은, 김지웅 (2009). 한국어판 대인 관계 반응성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. *대한 신경정신의학회지*, 48, 352-358.

김노라, 조명진 (2017). 운동선수의 수치심과 도덕적 이탈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. *한국여성체육학회지*, 31(1), 53-68.

유재학, 박지선, 박두흠, 유승호, 하지현 (2009).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의 타당화: 상담 및 치료적 개입에서의 활용. *한국심리학회지: 건강*, 14(3), 563-578.

Erikson, E. H. (1963). *Childhood and society*. New York: Norton.

Kealy, D., Rice, S. M., Ogrodniczuk, J. S., & Spidel, A. (2018). Childhood trauma and somatic symptoms among psychiatric outpatients: Investigating the role of shame and guilt. *Psychiatry Research*, 268, 169-174.

Lyons, M. T., Brewer, G., & Bethell, E. J. (2017). Sex-specific effect of recalled parenting on affective and cognitive empathy in adulthood. *Current Psychology*, 36(2), 236-241.

Marschall, D., Sanftner, J., & Tangney, J. (1994). *The state shame and guilt scale*. Fairfax, VA: George Mason University.

Sekowski, M., Gambin, M., Cudo, A., Wozniak-Prus, M., Penner, F., Fonagy, P., & Sharp, C. (2020). The relations between childhood maltreatment, shame, guilt,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inpatient adolescents. *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*, 276, 667-677.

Tangney, J. P., & Dearing, R. L. (2002). Gender differences in morality. In R. F. Bornstein & J. M. Masling (Eds.), *The psychodynamics of gender and gender role* (pp. 251-269).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.